

5일간의 특별한 걷기 축제

2010 제주올레 걷기 축제 내달 9~13일 1~5코스서, 지역주민 참여 등 눈길 축제 연계 세계 10개국 참여 월드 트레일 컨퍼런스도 진행...사전접수 해야

등록 : 2010년 10월 01일 (금) 10:04:38
최종수정 : 2010년 10월 01일 (금) 10:04:38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제주올레에서 만나는 자연과 문화, 사람들로 세상과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올레는 세계인이 참여하는 '2010 제주올레 걷기 축제(2010 JEJU OLG FESTIVAL·이하 올레 걷기 축제)를 다음달 9~13일 올레 다섯 개 코스에서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올레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 축제를 내건 이번 올레 걷기 축제의 주제는 '행복하라, 이 길에서(Be happy on the trail!)'.

참가자들은 제주올레 1코스부터 5코스까지 총 92km 구간의 다섯 개 코스를 하루 한 코스씩 체험하게 된다.

제주올레를 걷기만 한다면 특별하지 않았을 이번 축제에는 올레 마을 주민들이 양념역할을 독특히 한다.

잠녀 물질 공연(1코스)과 혼인지 설화 연극·아줌마 난타(2코스), 풍물공연과 바룻잡이 체험(3코스), 소원의 돌탑쌓기와 주민 밴드 공연(4코스), 대나무 어랭이 낚시 체험과 망장포구 할망노천 주막(5코스) 등 코스별로 마을의 문화와 역사를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축제 참가자들을 맞이한다.

마을 길을 따라 걷는 것으로 자연스레 행사장에 닿을 수 있다는 것도 이번 걷기 축제만의 묘미다. 각 코스 종점에는 지친 발을 풀어주는 족욕목장이 개설되고, 걷기 축제 운영위원회가 마련한 종점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축제 전날인 8일 오후 4시 표선 제주민속촌박물관에서 싱어송 라이터 이두현·강허달림과 R&B그룹 윈디시티의 전야공연이 준비됐다.

축전에 앞서 7~9일 사흘간 세계 유명 10개 트레일이 참여하는 '2010 월드 트레일 컨퍼런스'가 제주올레 3코스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다.

지식경제부·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주최, ☞제주올레·제주관광공사 주관의 이번 행사에는 스페인(산티아고)·캐나다(브루스 트레일)·영국(코츠월드)·호주(파크 빅토리아)·일본(시코쿠 오펜로) 등 해외 트레일 10개 기관과 관련 학계 및 여행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세계 트레일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번 축제 참가인원은 1만명으로 24일까지 2010 제주올레 걷기 축제 홈페이지(www.ollewalking.co.kr)를 통해 온라인 사전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참가비는 사전 신청에 한해 1인 1만원,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1인 8000원이다. 현장 신청 참가비는 1인 1만 5000원이다. 문의=762-2172, 762-2173.